

88년 1학기 사업 평가 보고서 (총 여성부)

1. 들어가는 말

총 여성부는 만 오천 이화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를 여성해방학의 관점에서 구체화시켜 나가며, 이를 통해 주체적인 여성상의 정립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라는 자기존재에 대한 긍정과 더불어 사회전반에 걸쳐 노정되어 있는 반 여성적인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주체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은 비로소 주체적인 인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며 전체운동과 여성 운동의 결합이 가능. 그러므로 한국변혁운동에서 중요한 절반의 몫을 차지해야 하는 여성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여성부는 이캠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차만별의 의식수준을 가진 이캠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사업은 여성해방학으로 접근함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성학회의 정착화가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외화사업은 흥미차원에서 머무르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1학기 사업속에서 부실했던 교육사업에 보다 중점을 두도록 하며, 이러한 방향성의 전제하에서 1) 외화사업, 2) 교육사업, 3) 연대사업의 순으로 평가하겠습니다.

2. 사업평가

1) 외화사업

*설문지 조사 (4월 2-3주)

여성부 첫 사업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조사를 위해 실시되었음. 각 단대, 과를 통해 2천부가 배포되어 그 중 9백여부가 회수되었음. 설문 내용에 있어 비과학적인 면이 있었으며, 내용량이 방대하다는 사후평가를 내렸음. 설문 결과는 2학기 학내 보도매체를 통해 보고할 계획임.

*북한 여성 사진전 (5월 3주)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 전시 공간 설정에 문제가 있었음. 이후에도 계속적이며 활발한 북한 연구 작업이 필요하며 사진전은 그 촉매제로서 시도.

*성 상품화 전시회 및 스티카 실천작업 (5월 4주)

축제기간을 통해 많은 대중적 관심을 모을 수 있었음. 그러나 원래 기획의도가 명확하게 부각되지 못함. 보다 치밀한 내용분석 및 설명이 필요했음.

*농활 부너반 자료집 발간 (6월 3주)

씨클 여성 한얼터와 결합하여 제작. 농민여성에 관한 구체적 세미나 내용 제시, 준비사항에 대한 지침, 마을잔치 프로그램 소개 등 교육에서 사후작업까지 완결적인 내용을 담아내어야 한다는 평가.

2) 교육사업에 대하여

여성부의 교육사업은 과의 여성학회를 기본 골간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속에서 커리큘럼을 확보하며 여성문제에 대한 기초적 인식과 체계적인 이해를 해 나감에 기본방향이 설정됩니다.

여성해방학의 입장은 바로 사회구조적 모순의 타파로 직결하며 단순히 여성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하여금 실천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کم 대중이 청년학도의 위상과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학도자체의 독자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그들에 알맞은 선전 선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성부의 교육내용은 여학도의 독자성을 최대한 발현시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기반에서 비롯한 실천적인 이론의 제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성해방학의 교육의 중요성은 이ک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선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학회대중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کم 여성학회의 구성 정도와 진행 정도에 대해 서술하겠습니다.

여성학회는 인문대 8개과 중 10개 학회가 있습니다. 여타 단대에서는 단대 여성부장의 부제로 인해 거의 학회 구성이 불가능하며, 일반학회 속에 여성해방학을 포함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학회 진행 정도에 따른 보고체계가 형성되지 못한 관계로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인문대를 제외한 단대에 대한 여성학회의 신설은 여성부 사업에 있어 중요사안.

이며 이에 대한 배려 또한 절실합니다. 여성부는 여성학회를 기반으로 자리잡아야 하며 학회의 신설과 확산은 여성부 사업에 있어 기초적인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학회를 꾸려 갈 수 있는 교육주체의 양성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학기 내에 단대 교육부로 여성학회 구성에 관한 공문을 작성 전달하였으나, 기존의 열악한 인적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직접적인 대중과의 접촉속에서 관심과 전망을 가진 대중들을 발굴하여 자체 교육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전환함이 요구되어집니다.

1학기 사업속에서 교육사업에 비중을 두지 못함으로 인해 사실상 내용적인 면에서 토대작업이 부실함을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은 일반대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대중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활가가 여해운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거나, 주관적인 해석이나 이론지향적인 면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여학우 대중을 추동해낼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선진적인 정치사상의식의 정도 차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캠에서는 대중과의 결합은 여해운의 대중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해운의 올바른 관점의 정립이 필요하며, 앞으로 여성부에서는 일반대중과 선진대중을 위한 교육내용을 연구, 마련함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문대 여성 학회의 진행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부로 설치된 과는 국문, 사회학과이며 그외는 여성학회로 존재합니다. 대부분 1학기에는 일반교양 커리를 진행해왔으며 이는 여성해방학의 경우 일정정도 사회과학적 토대가 요구되어지기 때문 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학회 간사의 자질 함양이 문제시 됩니다. 여타의 학회보다 관심을 가진 학회연들로 구성된 데 비해 목적의식적인 커리 조정이나 내용마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3) 연대사업에대하여

여성부는 여회 사업의 연대 모색 및 여학운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매주 1회 서부지역 여대협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대모임의 내용은 주로 학내보고와 체계의 이해, 공동사업 구상 등에 머물렀으며 5월 이후에는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대협에서는 방죽식과 성고문 투쟁 그리고 자료집 발간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서지 여대협 모임은 각 캠프의 체계면에서 오는 차별성으로 인해 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자체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여 소모적인 면을 보였습니다. 아직 까지 각 캠프 여회의 활성화가 되지 못한 관계로 연대모임은 대표자 간의 정보 교환 및 상호교류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며 내용적인 동일성과 실천력의 결집은 현재수준에서는 무리가 따릅니다. 여대협 모임의 필요성은 바로 하부로부터 제기되어야 하며 그에 근거하여 내용 또한 조정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대협이 가진 체계와 동원력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캠프 여회 사업의 안정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3.마침 글

위에서 간략하게나마 1학기 총여성부 사업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학기에는 학회 강화, 지원사업에 보다 중점을 두고 교양주체의 발굴과 여해운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문제는 매우 근본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반면 그 해결방도 또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레닌동지는 이러한 여성문제에 대해 혁명운동에 있어서도 방기되기 쉬운 여성들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그들의 특수한 이해에 근거한 조직의 구성과 선전선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성부는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로 향한 변혁운동에 당당한 주체로 나설 수 있는 해방된 여성의 모습을 위해 더 한층 분발하겠습니다.

통일염원 44년 7월 26일 해방이과 총학생회 여성부

23부.

여학생.

88년 2학기 해방이화 총학생회 여성부 사업 계획서

총 여성부는 이 화인이 평평한 역사속에서 이 땅의 주인으로, 이 땅의 민족 자주화의 대열에 동참하여 여성해방과 조국통일을 이루는 그 날까지 하나로 단결되는 이 화학우들의 자주적인 모습을 위해 분산된 우리의 주체의지를 한데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미옥하나마 꾸준히 사업을 전개해 나왔습니다.

지난 1학기 사업의 평가에서 노정된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고, 보다 이 화인의 이해와 요구에 근접하기 위해 2학기 사업은 지속적인 내부교육사업의 전개로 튼튼한 토대의 결실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방향성

주로 외화사업에 치중하였던 1학기 사업에서 가장 부족했던 점으로 지적된 것은 교육사업이었습니다. 무차별적인 대상의 설정으로 인해 사업은 자기 완결성을 갖기 어려웠고, 축적물을 만들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여성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도모하는 교육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학기사업의 방향성 또한 각 과, 단대를 통한 학회사업을 중심으로 여성해방학에 대한 관심도를 체계적으로 결집, 정립시켜 나가서 실질적으로 학회원들이 여성부 사업의 일차적 주체로서 자리잡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2. 획득 목표

여성부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 화인이 자주적, 주체적 여성으로 적극적인 자기 삶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시기적 목표로서 2학기사업의 목표는 구체적인 획득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이 화인에게 주체적 여성상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여성해방의 그날을 향한 준비기적 시기라 할 때 2학기 사업의 목표는 대중교육사업의 강화라는 방향성속에서 각 단과대별 여성학회의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개 단과대 모두 여성부와 여성학회 신설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기존의 학회운영이 비교적 원활히 되고 있는 사범대, 법정대에는 학회와 여성부신설이 가능하도록 그 기초작업

수행하는 것이 2학기 사업의 목표입니다.

3. 중점사업

대중교육사업의 강화를 위해 2학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사업의 집중적 전략단태라 할 수 있는 사범대, 법정대에 학회구성을 위한 교육주체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동해 나가는 것이며, 둘째는 기존의 여성학회가 구성되어 있는 인문대 여성부와 학회의 내용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서 모범적 단태의 사례로 부각시켜 내는 것입니다. 셋째는 대중교육용으로 신문형식을 빌어 학기당 2회에 걸쳐 여성부 자체 신문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여해운의 관점정립을 위해 자료집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가장 요구되는 부분부터 개괄적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내용을 실어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성을 충실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내용의 설정도 미흡한 점이 많겠으나, 앞으로 한 학기내에 결과물을 가진다는 조금함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4. 월별 계획

9월 1) 여성신문 1호 발간

2) 1차 자료집 제작 (여해운의 관점정립 도모)

3) 에이즈와 올림픽의 상관관계에 대한 홍보작업

10월 1) 여성 영화 상영 (3편 정도)

2) 광고에 나타난 성 상품화 슬라이드 상영

3) 2차 자료집 제작 (내용 미정)

11월 1) 여성신문 2호 발간

2) 여성단체 소개 (사회 활동을 바라보며)

12월 1)3차 자료집 (내용 미정)

2)여성학회 간사 교육

통일 염원 44년 8월 27일 해방이화 총학생회 여성부